

가정환경과 아동의 삶의 질

Family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for Children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들은 대부분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을 받으며 물질적인 면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충족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러한 모습이 모든 아동들의 가정환경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정환경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동결핍 지수다. 아동결핍 지수 조사결과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의 풍토에서 아동기에 보다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 아동들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1. 들어가며

가정환경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가정은 가장 근거리에서 아동의 성장과 복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요인이다. 아동의 복지욕구와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에 가정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한 이유다. 2013년에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가정환경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들의 가정환경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¹⁾.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주양육자뿐만 아니라 아동에게서도 직접 가정환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곳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가정환경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아동들의 가정환경 실태

1) 가족의 구조와 관계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동들은 양부모와 함께 생

1) 이 글은 정책보고서 2013-92 아동종합실태조사 (김미숙 외(2013))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활하고 있고 가족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가구 형태와 가족관계 수준에서 중요한 차이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아동의 87%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그리고 약 8%의 경우가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가구유형 상태는 소득수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아동가구들을 일반가구, 차상위가구, 기초수급 대상가구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가구 아동의 89.5%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오히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 아동 모두의 약 58%가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족관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측정된 가족관계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약 28점 정도로 ‘그렇다’ 정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부부불화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아동들은 대부분 화목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에게 결혼 생활 만족 여부를 물었을 때 90% 이상의 부모들이 ‘만족하는 편이다’ 이상으로 결혼생활을 평가하고 있었다. 부부싸움의 빈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거의 싸우지 않는다’와 ‘일년에 1~2회 싸운다’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60%대를 넘는 것으로 나

표 1. 가족관계 문항 내용

구분	문항내용
가족관계	결정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참여 시킨다
	각자의 제안을 들어주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모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각자의 능력껏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서로 이야기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가족 결정에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간의 사랑이 줄지는 않는다
	부모들은 모든 결정을 하기 전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

자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가구의 경제형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만족도의 경우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우가 현격히 낮아 ‘불만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부싸움의 경우에서도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싸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 6.7%와 5.5%를 차지해 일반가구의 1.6%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아동에 대한 교육 기대

우리나라는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도 그러한 평판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절대다수가 자녀들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가 보여주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4년제 대학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약 25%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모습이 보인다.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고등학교라고 답한 비중이 각 3.9%와 3.4%에 달해 일반가구의 0.6%보다 현격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전문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가정생활에서 식생활은 가족구성원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약 8%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을 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식품결핍과 영양섭취 부족을 포함하는 ‘식품 미보장’의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미보장 상태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림 1],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층의 경우에는 약 8.7%가 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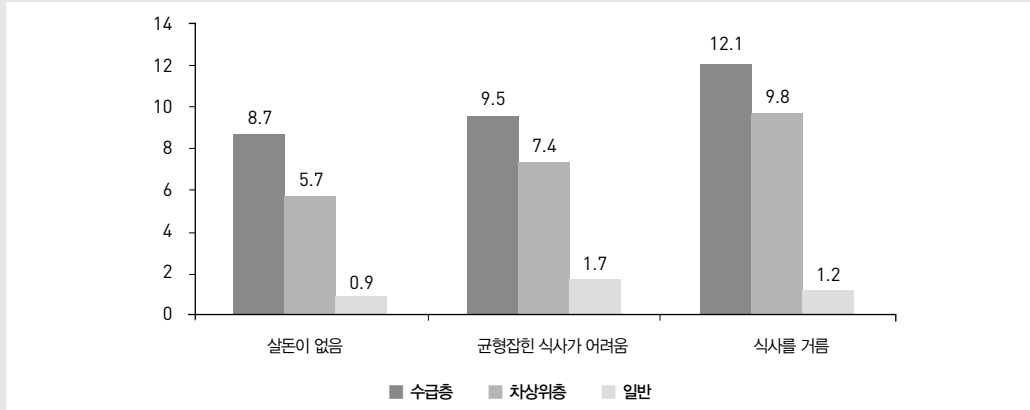
표 2. 희망교육 수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이상 (석사/박사)	계 (명)
전체		0.0	0.7	3.6	70.5	25.2	100.0(9,654,614)
소득 수준	기초수급	0.3	3.9	13.8	73.9	8.0	100.0(247,664)
	차 상 위	0.0	3.4	12.0	77.3	7.3	100.0 (129,073)
	일 반	0.0	0.6	3.2	70.3	25.9	100.0(9,277,876)

자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 계층별 식품 미보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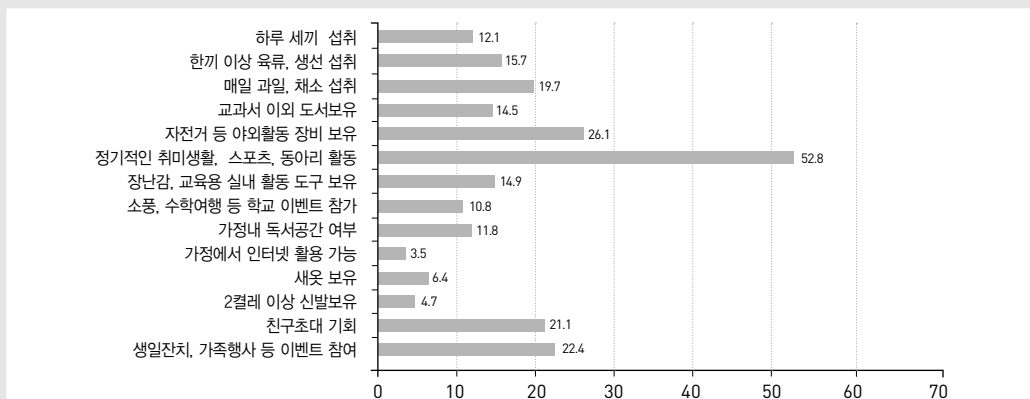


자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돈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9.5%가 경제적인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층의 경우는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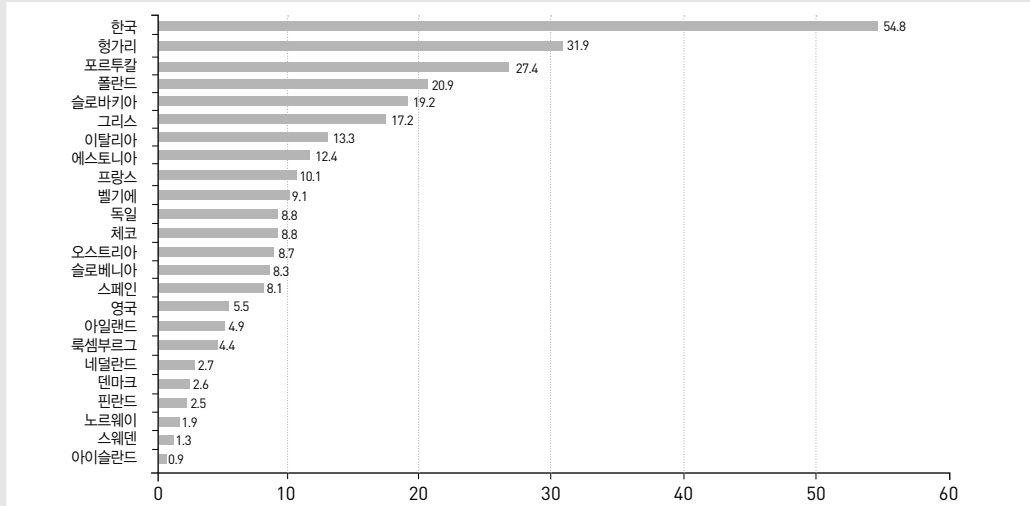
아동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는 아동결핍(child deprivation) 수준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총 14개의 문항을 통해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누리거나 가지고 있지 못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주양

그림 2. 아동의 항목별 결핍 현황



자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 아동결핍 수준 국가 비교



자료: UNICEF office of research(2013), *Child Well-being in Advanced Economies in the Late 2000s*, http://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wp_2013_1.pdf (검색일: 2013. 11. 15)

육자가 응답하였으며, 9세 이상 아동은 스스로 응답하였다. 물질적 박탈 문항은 ‘하루 세끼 섭취’ 등과 같은 식습관, ‘교과서 이외의 도서보유’나 ‘자전거 등 야외활동 장비보유’ 등과 같은 장비보유 여부,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나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가능’과 같은 환경적 측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문항별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 않음’, ‘없음’을 의미)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보면,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2.8%),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아동결핍 지수 측정을 통해서 본 한국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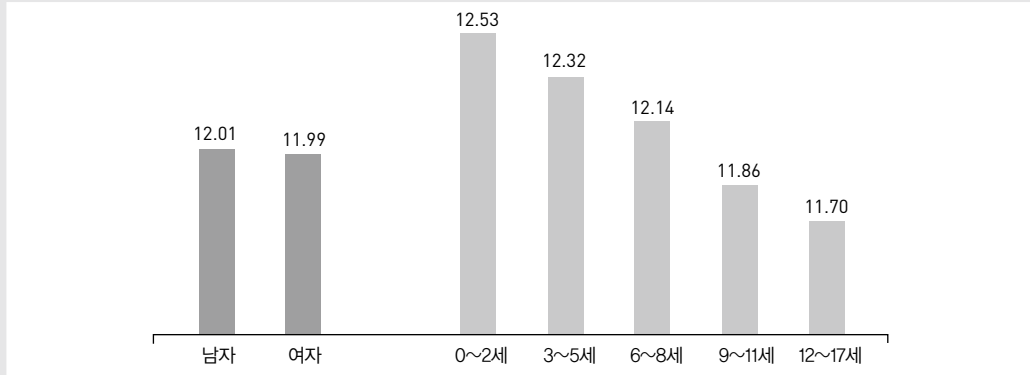
동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문항 중 2개 이상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로 측정되는 아동결핍 수준을 23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54.8%²⁾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아동정책 수립 시, 아동의 식습관 및 여가활동 여부 등 생활 습관, 아동이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도구 및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지 여부 등 생활환경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4)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

2) 국가비교를 위해 OECD 국가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11, 13, 15세 아동의 물질적 박탈수준으로 계산함.

그림 4. 아동의 성별 및 연령대별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자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총 5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이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측정된 전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약 12점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집단별로는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17세 아동을 둔 부모의 아동 양육행동도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아동 양육태도 척도를 통해 측정됐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척도의 점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아동 양육태도를 나타

낸다. 이렇게 측정된 아동 양육행동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약 25점으로 ‘그런 편이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령기 아동 부모의 양육행동 중 중요한 부분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참여다. 교육 참여 활동은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여로 나타나게 된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부모의 아동 교육에 대한 참여 정도를 <표 3>에 제시된 5개의 항목에 대한 응답을 통해 파악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참여하고 있을 경우 1점(예)과 참여하지 않는 경우 0점(아니오)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척도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활발한 아동의 교육에 대한 참여행동을 나타낸다.

<표 4>는 부모 교육참여 행동 척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5개 행동 중 약 2/3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육참여 행동 수준의 차이는 소득에 따라 나타났는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평균은 2.3에 머물러, 일반가구의 3.5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5) 여가와 문화활동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동과 가장 자주하는 여가 활동은 외식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약 65%의 아동이 부모와 한 달에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도가 낮은 여가 활동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이었다(약 5.5%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동들이 가정에서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는 TV/비디오 시청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1~3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중: 50.4%, 주말: 50.3%). TV/비디오 시청 시간보다 독서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독서 시간은 하루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

중: 56.9%, 주말: 56.1%). 인터넷 사용은 주중에는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43.9%), 주말에는 1~3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1.9%).

3. 나가며: 아동정책에의 함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들은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을 받으면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충족받으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양육행동도 비교적 긍정적인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러한 평균적인 모습이 모든 아동들의 가정환경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세부 집단별로는 상당히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역시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이다.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

표 3. 부모의 교육참여 행동 문항 내용

구분	문항 내용
부모의 교육참여 행동	△△(이)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얘기한다
	나는(혹은 배우자) △△(이)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는다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
	△△(이)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이)의 알림장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자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층의 경우는 한부모 가구가 오히려 대표적인 가구유형이고, 양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고 부부싸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아동에 대한 교육 기대 수준과 교육참여 활동도 저소득층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적인 생활여건 차원에서는 아동가구의 식품 미보장의 수준이 아직도 8% 정도로 높고 이러한 상태는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가정환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사결과 중 하나는 아동결핍 지수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지수는 54.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러한 결과가 물질적인 결핍 정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취미생활, 친구와의 교류, 가족행사 참여 등 아동들의 활동 수준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정기적인 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에서 절반 이상인 약 53%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의 풍토에서 아동기에 보다 자유롭게 활동에 참

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 아동들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들에게 건전한 발달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보다 더 보장해주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결과다.

아동들의 가정환경의 차이는 꼭 경제적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는 아동이 어릴수록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는데서 오는 양육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문제가 크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번 조사결과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환경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은 세부 집단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의 열악한 가정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방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잘 표적화된(well targeted) 정책과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표 4. 부모 교육참여 행동

(단위: 점)

구분		명	평균	SD
전체		9,678,277	3.45	1.63
소득수준	기초수급	247,664	2.34	1.68
	차상위	129,073	2.34	1.76
	일반	9,301,539	3.50	1.61

자료: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